



제목	Religions of Iran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Oneworld Publications
발행일	2013. 10. 22.
저자	Richard Foltz
출판국가	영국
페이지수	314
ISBN 또는 ISSN	978-1780743080

#### 내용 요약

이 책은 선사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란 지역에 나타난 종교들에 대한 연구서이다. 저자는 오늘날 이란이 오직 이슬람과 연관되어 언급되지만, 실은 이란의 사상이 실크로드를 오갔던 상인들의 유대교, 불교, 기독교, 마니교의 전승에 전해지면서 이란은 전 세계 종교 형성에 전대미문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한다. 유라시안 초원지역의 인도 유럽 부족의 하나인 이란은 그리스, 로마, 북유럽, 인도의 신화와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공유된 과거가 이란에서는 조로아스터교로 나타났고, 조로아스터교의 핵심적 신앙체계는 후대에 유대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에 반영되어 나타났다.

이 책은 크게 5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섹션은 고대 이란의 종교들을 다루고 있다. 고대 이란 종교들의 기원으로 시작하여 미트라교, 조로아스터, 마즈다, 그리고 이란의 여신들을 소개한다. 두 번째 섹션은 유대교, 불교, 기독교, 만다야교 등 이란의 외래 종교를 다루고 있다. 세 번째 섹션은 사산 왕조 시기 조로아스터교를 위협했던 종교들인 마니교와 마즈닥교와 이슬람교를 다루고 있다. 네 번째 섹션은 수피즘과 시아 이슬람 그리고 이슬람 이후의 조로아스터교와 두 개의 쿠르드 종파 등을 다룸으로써 이란에서 이슬람교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다섯 번째 마지막 섹션은 바하이교, 이란 이슬람 공화국, 오늘의 이란 조로아스터교의 운명 등 근대의 충격과 도전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종교적 현상을 다루고 있다.